

# 크레이그 키너 박사, 사도행전, 강의 13, 사도행전 10-11장

© 2024 크레이그 키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사도행전을 가르칠 때 Dr. Craig Keener입니다. 13회차, 사도행전 10장과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는 고넬료에 대해 말하는 최초이자 가장 긴 이야기인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이전 세션에서 우리는 사도행전 10장과 1절, 가이사랴와 로마군 복무, 그리고 고넬료의 배경인 백부장에 대한 소개 자료를 소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10장 2절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그의 자선으로 인해 그를 아는 유대인들에게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흥미로운데, 왜냐하면 누가복음 7장에서 지역 회당을 지지했던 백부장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와서 그를 대신하여 말했기 때문입니다.

음, 이 경우에는 하느님에 대한 헌신을 표현합니다. 이는 또한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는 것을 고려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을 표현하며 때로는 다른 종족들에 의해 무시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여기서 구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그분을 찾게 하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제가 무신론자였을 때 저는 실제로 '내가 틀렸다면 어찌지?'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이 있다면 어떨까요? 저를 그런 방향으로 이끌게 된 것 중 하나는 이미 제가 13살이었을 때 저는 플라톤을 읽고 그가 영혼의 불멸성과 그에 대한 주장, 특히 영혼의 선재로 인한 타고난 지식에 관해 말한 내용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영혼. 나는 그것을 사지 않았습니다. 비록 영혼의 선재에 대한 그의 생각을 사지는 않았지만, 그가 불멸에 관해 묻는 질문은 나를 정말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유한하고, 필멸의 존재이며, 죽을거야.

그리고 내가 영원히 지속되는 삶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한한 누군가가 나에게 그것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가 왜 나에게 관심을 가지겠는가? 그 존재가 완벽하게 사랑스럽다면, 그것은 가능한 모든 것 중 최고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존재가 완벽하게 사랑스럽다면, 왜 그 존재가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확실히 완벽하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매우 이기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존재를 알고 싶은 유일한 이유는 영원히 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글썄요, 그것이 제가 그 존재를 알고 싶었던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저를 만지셨고 저는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자신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구도자에게 손을 내미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기독교 가정이나 그와 비슷한 집안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보다 훨씬 더 멀리 있었다. 그는 아마도 회당에 참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 매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적어도 가장 크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종자의 범주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부 유대 사람들이 의로운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자기들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범주에 속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따르지 않았고, 음행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약백성의 일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그룹,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칭호로든 다른 이름으로든 요세푸스와 필로의 비문, 특히 소아시아의 아프로디시아스에서 자주 입증됩니다.

고넬료는 아직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군인들이 종교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종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유대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2절에서는 그의 집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는 적어도 공식 로마법에 따르면 결혼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비공식적으로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법에 따르면 첩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20년의 군 복무 중에는, 그리고 만일 그가 백부장으로 더 오래 머물렀다면 아마도 그보다 더 긴 군 복무 기간 동안에는 정식으로 결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종종 행해진 일은 당신이 은퇴한 후에 당신에게 단 한 명만 있다면 당신의 첩이 아내로 간주되도록 허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많이 다니는 군인들, 더욱이 이사를 많이 하는 백부장은 군대가 이사갈 때 첩을 데리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장 최근에 가졌던 첩과 결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이사라에서는 군대가 나중에 징벌을 받을 때 움직이지 말아 달라고 간청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지역에 많은 군대가 있었던 것처럼 그들의 지역에 매우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결혼을 했는지, 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은퇴한 백부장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그가 보조 부대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로마 이름을 갖게 된 이유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으로서 그는 군단에서 빌려주었을 수도 있고 하인뿐만 아니라 군인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로마 시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도 여전히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이사라 주변의 징계가 느슨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전직 백부장으로서 그는 비번인 군인을 고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에게는 친척이 몇 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가 현지에서 모집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에게 첩이 있었고 이들이 그의 친척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은퇴했고 이들은 그의 친척이었습니다. 24절에서는 친족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용어는 가구라는 용어와는 대조적으로 단순히 가족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는 하인이 아니라 유전적으로 그와 친척이거나 그의 아내와 유전적으로 친척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종교를 공유해야 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개종하면 아내도 개종하고 가족도 개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가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하인을 의미할 수도 있고, 해방된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7절에서는 종이 해방되면 이전 노예 주인이 해방된 사람에게 사회 진출 등을 돕는 사회적 의무를 졌기 때문에 그런 권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해방된 사람은 노예 소유자의 대가족의 일부로서 이전 노예 소유자에게 특정한 사회적 의무를 졌습니다. 글쎄, 노예 중 가장 값싼 것은 정규 군인 연봉의 약 3분의 1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일반 병사보다 15배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군단에서 가장 높은 봉급을 받는 백부장은 그보다 60배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글쎄요, 백부장으로서는, 아마도 그냥 정규 백부장으로서는 그는 일반 병사들보다 15배의 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는 오후 3시쯤에 기도했습니다. 그 때는 유대인의 저녁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정규 기도 시간에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베드로에게도 비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인데 분명히 다음 날일 때인데 고넬료와 동시가 아닐 때도 아니고 고넬료의 비전에 의존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독립적입니다. 그것은 신성하게 조화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욥바로 베드로를 만나러 여행합니다. 가이사랴는 욥바에서 북쪽으로 약 30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후 3시 이후에 바로 출발하더라도 밤새도록 걸어서 여행해야 하거나, 정오까지 요파에 접근하려면 말을 타고 여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긴급한 임무로 여깁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해야 할지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거나 베드로가 그들을 방금 보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두장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에게 확인해 보라고 하셨고, 베드로에게도 그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글썄, 그들은 평평한 지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채를 말리는 데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개인 기도나 기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가 천개 아래 있었다면 유대에 있는 대부분의 집보다 한낮에도 더 시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규 시간 기도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단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거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가 배가 고프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일부 지역에서는 정오가 식사를 위한 정상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로마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매우 끔찍한 음식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당신의 문화나 입맛에 따라 어떤 음식이 당신에게 가장 끔찍한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피터에게는 문화적으로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10장 12절에 보면, 포대 속에 내려놓은 짐승에는 레위기 11장에 따라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포함됩니다.

문제는 그것들을 섞으면 모두 부정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상 이들은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피터는 항의한다.

그리고 그 장면은 에스겔서 4장, 13장부터 15장에 나오는 장면과 매우 흡사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사람의 똥 위에 음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 그것은 부정한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항의를 들으시고, 대신 소똥으로 요리해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베드로는 하나님이시여 나는 부정한 것을 결코 먹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 말은, 그 사람은 태너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데 당신은 거기까지만 했다는 거죠. 마카베오 사람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기보다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자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유대 민족의 경계 표시 중 하나였습니다. 부분적으로 유대교의 결정적인 특징이 된 특정한 것들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저항하기 위해 죽어야 했던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부정한 것을 선언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볼 수 있듯이 이방인을 포함하여 10장 28절과 15장 9절에서 이에 대한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방인들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글쎄요, 베드로는 이 비전을 얻었습니다.

그 사이 고넬료의 사자들이 그에게로 오고 있습니다. 10장 17절부터 23절까지에서 베드로와 시몬의 집이 이방인을 영접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17절에서 베드로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읍바는 큰 마을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찾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태너 시몬. 무두장이는 일반적으로 물 근처에 있고 태닝 구역에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가장 악취가 나는 구역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을 곳곳에 흩어지기보다는 그 일을 하기 위해 함께 모일 것입니다.

일단 거기에 도착하면 길을 물어보면 됩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한 일입니다. 그런데 무두장이 시몬은 어디 있지? 사이먼(Simon)이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지만, 거기에는 사이먼(Simon)이라는 이름의 태너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바깥문으로 온다고 합니다. 글쎄요, 그 사람이 바깥쪽 문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약간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 피터가 그와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왜 그들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소리를 질렀는가? 글쎄요, 한편으로는 예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정확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유대인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이먼은 무두장이일지도 모르지만 그는 확실히 유대인입니다. 내 말은,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을 청소하는 데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분명히 이 사람은 무두장이 시몬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령의 역할을 봅니다.

먼저 우리는 베드로의 환상을 봅니다. 그러나 둘째로, 10:19에서 그가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낸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8장 29절에서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서 이 수레를 타라 하시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천사가 이미 그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한 후에 영은 그에게 즉각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영이 우리 삶을 인도할 것을 믿을 수 있지만, 영이 특히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는 특히 이러한 장벽을 넘는 일, 곧 성령께서 우리가 다른 종족과 이방인에게 다가가도록 인도하시는 방법을 강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런 특별한 방식으로 성령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영은 극적인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한번은 내가 걷고 있었는데 내 앞에 한 젊은 남자가 있었는데, 아마도 내 앞에 한 블록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재촉하셔서 그분의 이름을 불러 주시고 그분의 이름을 나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게 정말 그의 이름인가요? 나는 그에게 전화했어야 했다. 나는 그에게 달려가서 "안녕하세요, 크레이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이름을 말했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 그걸 불렀어야 했는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게 내 첫 시도였어.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베드로와 빌립은 처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성령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했고 그는 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래서 베드로는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평평한 지붕에서 이어지는 외부 계단 아래에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사다리가 있었지만 이 사람이 외부 문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계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3a절에 보면 그들은 이방인들을 자기들과 함께 하룻밤 묵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불결한 식탁 교제를 염려하면서도 합당한 환대를 나타냈습니다. 먹이를 주고 하룻밤을 묵게 합니다.

태너는 엄격한 규칙에 덜 관심이 있을 수 있으며 조파는 혼합된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아마도 이방인 등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태닝 지역의 경우 유대인 무두질업자뿐만 아니라 다른 무두질업자가 분리된 마을의 대부분이 아닌 그 지역에 모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문제가 되었고, 특히 엄격한 회원들에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15장 5절에 이르면 일부 바리새인들도 신자가 되어 여전히 엄격한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것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소문이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소문은 곧 알려질 것입니다. 10.23b부터 33까지, 고넬료가 베드로를 영접함.

따라서 환대는 양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10.23b, Peter는 추가 동료를 데려옵니다. 그는 여섯 명의 남자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7개가 있습니다. 글썬요, 우리는 이전에 그 숫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여섯 명을 데리고 가나요? 글썬요,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들이 잘못된 것이 없다는 증인을 갖고 싶어합니다. 1915년 신명기 17장 6절에는 적어도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하고 베드로의 증인은 그 수의 두 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10시 24분쯤 해가 뜰 무렵에 출발했어요. 30마일이에요. 본문에서 그들이 다음날 도착했다고 말하고 있는 사실은 그들이 길을 따라 하룻밤을 머물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30절).

그들은 아마도 혼합 도시, 아마도 아폴로니아에 머물렀을 것인데, 그곳은 그곳의 절반도 안 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는 베드로에게 마치 신인 것처럼 존경을 표합니다.

이교도들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14 장 11절에서 리스트라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28장 6절에서 우리는 몰타 지역 주민들 중 일부가 바울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경의를 표합니다. 그는 그것을 신성한 의미로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단지 신이나 왕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동방에서는 사람들이 종종 왕 앞에 절을 하곤 했는데, 이는 당신이 어떤 종족에 속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10.27부터 29까지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답변을 읽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고넬료가 자신에게 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도 합당한 행동으로 여겨지는 하나님의 경의를 거부합니다. 당신이 황제가 아니라면 그것은 적절한 행동이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 앞에 절하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27~29년에 독실한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자들의 집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아마도 우상 숭배자가 아닐지라도 이것은 모든 이방인의 가정에까지 확대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미리 아는 한, 내 말은, 이 사람은 우상 숭배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길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쯤이면 여러분은 아마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음식을 먹는 것과 그들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부정하였다.

고넬료는 우상 숭배자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연회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함께 잔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반사회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에서 그러한 규칙을 정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가 이 규칙을 열방과 구별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하여 그들을 열방에 보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 신자들을 증인으로 삼고 계십니다. 음, 10.34부터 43까지, 우리는 베드로의 메시지에 대해 읽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전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처럼 성령에 민감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의 편견을 기꺼이 극복해야 합니다. 38절에서 그는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신다고 말합니다. 즉 은인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리스어 표현은 후원자를 가리키는 데 사용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언어는 통치자들이 자주 사용했습니다. 신에게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단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해 오셨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셨다는 점과 관련하여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언급했듯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교회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비록 기름부음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신약의 다른 부분에서도 그러한 표현이 사용되지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10장 42절에는 대부분의 유대교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심판관이시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이 최고 심판관이십니다.

또한 36절에서는 만유의 주여, 비록 그것이 황제에게도 사용되었지만 그것은 확실히 신성한 용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황제를 섬기는 사람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43절을 보면 모든 선지자도 메시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하심을 증거하였느니라.

글쎄요, 아마도 그는 다가올 시대, 곧 구원의 때에 메시아적 회복에 관해 선지자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테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누가가 누가-행전 전체에서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선지자들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엠마오로 가는 길을 설명하실 때나 나중에 누가복음 24장에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실 때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원칙이 그를 가리키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궁극적으로 그분 안에서 성취됩니다. 10:44-48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는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를 뒤흔들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의 모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에서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글쎄요, 피터는 그로부터 배워야 했어요.

44절에서 그의 설교가 중단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문학적 장치였습니다. 그 사람이 말해야 할 모든 말을 마쳤다면, 저자에 관한 한, 그 사람은 방해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치이거나 공통된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연설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화자를 방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45절부터 47절까지는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반응을 읽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글썄, 사마리아인들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내 말은,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종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중간쯤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위한 성령부으심에 대한 종말론적인 약속은 에스겔 36장, 이사야 44장 등에서 나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진다는 요엘의 말을 인용했지만, 베드로는 의심할 바 없이 그것이 모든 유대인 육체에 부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말은, 이 구절의 문맥은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대하십니다. 이 시기의 대부분의 유대인 교사들은 현 시대에 성령이 임하신다면 이것은 사해 두루마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유대인 교사들은 성령이 가장 경건하고 경건한 사람에게만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그들에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힐렐 세대에는 힐렐이 성령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으나, 그 세대는 성령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글쎄, 분명히 기독교인들은 매우 다른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해 왔지만 이방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과 동일한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음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때 방언이 항상 일어난다는 뜻입니까? 글쎄요, 8장과 15절에는 이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두 가지 방식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오순절 날에 받았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성령을 받았음을 확증해 줍니다.

즉,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들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또한 오순절 날에 했던 것과 동일한 일을 의미할 것입니다. 즉, 이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문화적 장벽을 넘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이방인들이 이제 사역의 동역자가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이방인들도 주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명을 수행하는 올바른 방법이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지만 일단 좋은 소식을 들으면 온정주의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종으로서 함께 사역합니다. 방언은 19장과 6절에 언급되어 있으며 예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찬양과 예언은 모두 성령의 영감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과 2장, 시므온, 스가랴, 세례 요한의 예언 등 누가복음-행전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성령께서는 종종 예언적 연설에 영감을 주십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에서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 모든 구절에서 항상 같은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일종의 영감받은 연설로 표현됩니다. 이는 누가복음에서 성령에 대해 특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 특히 성령의 부어주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표현된다면, 적어도 종종 우리는 처음에 권한 부여를 경험할 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 부여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1048년, 그 문화에서 세례는 개종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었지만 먼저 할례를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사람들을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셨다면, 그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약속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임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미 더 큰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물 세례만 받아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그것을 줍니다.

할례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환영하셨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 이 이방인들과 함께 숙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공격이 가중될 것이지만, 그들이 장벽을 넘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셨다는 교훈도 강화될 것입니다.

이제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에서 베드로는 카펫 위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수석사도였지만 여전히 리더십 팀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돌아올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로부터 카펫 위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분명히 소식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빠르게 퍼질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바리새인들을 화나게 한 것처럼 교회 전통을 화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은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감성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2절과 3절에서는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하려면 할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보수적인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받기 위해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일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유대교로 개종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과 함께 유숙하고 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그 지역 사회의 보수적인 구성원들의 종교적 감수성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창세기 17장의 자연스러운 추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을 기억하십시오. 집안 식구 모두에게 할례를 베풀어야 하고, 모든 종에게도 할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 백성의 일부가 되려면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모두 끊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례가 언약의 표시일 뿐, 언약의 참된 의미를 가리키는 표시일 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영을 주심으로써 그들을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보여 주셨기 때문에 표식이 불필요하게 되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할례를 베푸셨다면, 종말론적으로 영에 대한 약속은 이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희가 부정한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자신도 1028년에 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나중에는 보수적인 공동체 구성원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읽습니다.

그는 스스로 그 일을 하려고 했지만, 야고보가 보낸 몇몇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좀 더 보수적인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 증인이 되는 데 관심을 갖고 있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도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 사람들을 온전한 형제자매로 영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복음의 문제였습니다. 1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누군가를 온전한 형제자매로 영접하는 것은 언약관계의 한 형태였습니다.

11, 16, 17.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외적 할례가 단지 가리킨 종말론적 언약의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회심의 행위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회심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고대 웅변가들이 가끔 사용했던 설득력 있는 수사적 논증 중 하나는 필연성 논증이었습니다.

그리고 필요성에 대한 가장 강력한 주장 중 하나는 내가 이것을 해야 하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성한 필요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 기본적으로 피터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학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피터가 증거를 갖고 있어요. 그에게는 증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그들의 회심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문화적 장벽을 넘어 그들을 감동시킨 동일한 정신은 자신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 그의 사명임을 확인하고 이방인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고 민족적으로 유대인이 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이방인을 환영한다는 것을 확인한 동일한 정신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노아에게 주신 일곱 율법을 지킨 의로운 이방인들이나 이전 전통에서는 일곱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이전 전통에서는 어쨌든 이 기본 율법들이 모든 이방인에게 주어졌으니 우상 숭배도 없고, 성적 부도덕 등.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믿었지만, 이로 인해 이방인들이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보수적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18절에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이

저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응답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점에서 누가는 안디옥에서 사역을 시작하며 이에 대해 매우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주요 인물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 있는 개인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의 사역은 이제 시골 갈릴리에서 도시 예루살렘으로, 국제적인 안디옥, 다문화 안디옥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매우 빠르게 교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들이 박해 때문에 흩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나는 이것이 성령께서 그들이 이것을 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예상치 못한 상황, 즉 우리가 처음부터 문화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으로 우리를 옮기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준비를 주셨습니다. 홍콩의 Jackie Pullinger나 펜실베이니아 시골에서 뉴욕으로 가는 David Wilkerson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Adoniram Judson이나 다른 사람들, Hudson Taylor,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인 William Carey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는 Hudson Taylor만큼 멀리 가지 않았지만 지역 문화와 동일시하고 지역 문화와 오늘날의 선교 운동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인도와 아프리카,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나누면서 자신의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전환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는 때로는 도시 환경에서 시골 환경으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글썄요, 문화적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급격한 전환은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뛰어난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운동은 시골에서 도시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이미 수세기에 걸쳐 이러한 다양한 환경에 적응해 왔습니다. 당신은 이방인의 도시에서 유대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 지방인 도시들 안에 자신들의 공동체를 갖고 있었지만 적응해 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적 언어를 말하는 방법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통로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이 이미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역 환경으로 이동하는 것이 편안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실 때 우리는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문화적 유연성을 발휘하고 우리가 이동하는 사람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들 가운데서 가장 잘 사역할 수 있고, 그들이 이미 신자라면 그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습니다.

1119년에는 페니키아, 키프로스, 안디옥에 대규모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신자들이 사울의 박해로 인해 흩어지자 이들은 각기 다른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바나바도 여기에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해가 잦아든 후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이나 몇몇 사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들이 널리 퍼져 정착한 곳이었습니다. 11장 20절과 21절에는 이미 디아스포라 출신이고 예수를 믿는 유대인 신자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종류의 전환. 그는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의 신자들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바나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같은 사람들이 포함될 것이며 아마도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들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의 아들들은 아마도 로마에 있는 교회에 알려져 있는데, 마가복음 15장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가의 청중은 이미 그의 자녀를 알고 있으며 루포는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나열한 루포와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타당한 가능성입니다. 어쨌든 이 신자들은 해외로 널리 퍼져 있으며 특히 키프로스와 구레네에서 온 신자들이 헬라파 사람들에게도 말하기 시작합니다. 글썄요, 우리는 앞서 헬레니스트에 관해 읽었습니다.

내 말은, 이 유대인 신자들은 헬라파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헬라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과 대조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헬레니즘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인 그리스인이나 헬레니즘화된 시리아인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헬레니즘을 통해 더 큰 언어와 문화를 공유했고, 그것이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교량 역할을 했습니다. 헬레니즘 유대교는 이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자연스러운 다리를 형성했고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피터 이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이미 그 이야기가 베드로를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히 그것은 베드로가 한 것보다 더 널리 퍼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예외적으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안디옥의 경우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조금만 더 가까웠더라면 의아해했을 몇 가지 일들을 그들은 가까스로 피해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리아의 오론테스 강에 있는 안티오크는 종종 오론테스 강에 있는 안티오크라고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를 시작하거나 심지어 자신의 이름을 딴 기존 도시의 이름을 짓기를 좋아했던 안티오크스라는 왕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13장에서 또 다른 안디옥에 대해 읽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안디옥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고대 지중해 도시 중심지였을 것입니다.

주민 수는 일반적으로 100,000~600,000명 사이로 추정되며, 아마도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인 300,000~400,000명 정도일 것입니다. 세 번째 또는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세 번째일 것입니다. 이곳은 로마 시리아 군단의 본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6,000명의 병력이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지중해 항구 도시인 셀레우키아까지는 짧은 강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항해하면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 키프로스였습니다.

종교적으로 안티오키아는 유명한 아폴론 숭배 중심지에서 도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유대인이 많았지만 또한 이교도가 우세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미스터리 컬트가 있었습니다.

이교도의 종교적 다양성으로 유명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다원적이었고, 상향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상향 이동하는 사람들도 많았으며, 상향 이동하는 유대인들도 많았습니다. 유대-로마 전쟁 이후 안디옥에는 유대인에 대한 약간의 편견이 있었지만, 그곳의 유대인 공동체는 유대에 더 가까운 남쪽의 다른 지역처럼 학살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개종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앞서 한 가지 내용을 읽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보다 훨씬 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는 이집트인, 그리스인, 유대인이 대개 도시의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으며 그리스인만이 진정한 도시 시민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안디옥은 좀 더 국제적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다양한 문화를 더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좀 더 자유주의적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증거하기 위해 이교 철학의 최고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러한 문화적 적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디옥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할레가 덜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유대교를 믿게 만든 에디아빈 왕이 할레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또 다른 장소에 대해 읽습니다. 그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여러분의 사람들에게 너무 불쾌할 것입니다. 하지 마세요.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위선자입니다. 정말 유대교로 개종하려면 끝까지 가서 할레를 받아야 합니다. 그는 해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은 반발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했지만 반란이나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두 포경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일부가 되기 위해 그것을 주장할 것입니다. 11장 22절부터 24절. 이제 우리는 4장에서 실제로 소개되었던 주인공 중 한 사람인 바나바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루크는 기회가 있을 때 미리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바나바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9장과 27절에서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소개했을 때, 즉 갈라디아서에서 몇몇 사도들을 모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1537년에서 1539년에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서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와 바울이 헤어졌을 때 바나바는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것은 유대교에서도 전통적으로 중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요 현자 중 한 사람인 힐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힐렐과 샴마이는 두 바리새주의 학파의 지도자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승리한 힐렐파는 힐렐을 매우 이방인이었고 이방인들을 그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유대인의 방식을 따르도록 도운 사람으로 되돌아보았습니다. 바울은 더 비판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바울과 바울의 성품을 극적인 방법으로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서로 다른 성격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격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너무 냉혹하게 대하는 변명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 하나님은 그를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는 매우 가혹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말년에는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방식, 오늘날 대부분의 루터교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이 나를 무기로 만드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굳건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했지만 때로는 회당을 불태우는 등 너무 지나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좀 극단적이었죠.

우리 대부분은 그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나바의 강점, 그의 강점 중 하나는 사람들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사람들을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예를 제공합니다. 11:25에서 그는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안디옥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흠,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글썄요, 예루살렘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러나 다소는 북쪽으로 100마일 떨어져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예루살렘만큼 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이 다소로 파견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9장에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의 부르심을 알고 있습니다. 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행자가 되리라. 이미 이 부름을 받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그는 북쪽으로 다소로 가서 바울을 찾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라고 부르신 바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이 핵심 장소로 그를 데려옵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베드로, 야고보를 연결한 것처럼 사람들을 연결하는 데 능숙합니다. 11:26,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신약성서에서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흔히 사용되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곳의 별명입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다른 곳은, 음,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한 번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여러분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으로 고발당하면 법적 고발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별명을 얻었나요? 글썄요, 그것은 사람들이 정당을 묘사하는 방식과 유사했던 것 같습니다.

카이사르의 당파를 카이사르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헤롯의 당파는 헤롯 당원이었습니다. 폼페이당의 당파는 폼페이인이었습니다.

안디옥 사람들은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2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꼬리표를 자랑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별명으로 시작했는데, 사용해도 됩니다.

우리는 참 왕이신 예수님의 추종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놀리려고 의도했다고 해도 우리는 그 타이틀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 왕이신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11:27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왔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초기 기독교는 매우 독특했습니다. 제의 중심지에는 그리스 신탁이 있었지만 신약성서에서 발견한 것과 같은 다른 예언 운동은 없었습니다.

신약성서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사무엘이 그들을 주관하는 사무엘상 19장에서 보는 것과 더 비슷합니다. 또는 열왕기하 2장과 4장에는 선지자의 아들들이 있고 엘리사가 그들을 제자화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초기의 많은 선지자들을 제자로 삼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체 예언 운동을 갖고 있으므로 여기서 사도행전의 경우에는 예루살렘에서 먼 안디옥까지 함께 여행한 선지자들에 대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황하는 선지자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고대에는 이동이 빈번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의 정말 특징적인 점은 선지자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사도행전 2:17-18에서도 예언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것이 특징적입니다. 그것은 고대 어느 누구도 그 시대에 이 정도까지 실제로 기대하지 않았던 성령의 부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Essenes가 가장 가까웠지만 이 정도에는 근접하지 않았습니다. 11장 28절, 그럼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기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클라우디우스 시대에 일어났다고 누가는 말합니다.

사실 그것은 기근의 연속이었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통치 기간 동안 농업을 황폐화시킨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46년에는 곡물 가격이 높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51년에는 로마에 곡물이 부족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거리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일부 유대인이나 유대교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특히 45년과 46년경에 유대 지역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디아베네의 헬레나 여왕은 다음 세대의 것입니다.

우리는 아디아베네 왕이 유대교를 믿게 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Adiabene의 여왕 Helena는 기근으로 인해 이집트 곡물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구입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배고팠습니다.

그녀는 유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많은 양의 식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은 이 기근이 전 세계에 일어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유대에 있는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사람들은 적어도 많은 신자들이 상향 이동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호품을 보냅니다. 이제 이것이 전 세계에 기근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기근은 안디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희생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말해줍니다. 이는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이나 4장 32-35절에서처럼 신자들이 동료 신자들을 존중하고 지역적으로

동료 신자들을 돌보기 만 한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또한 문화 간 기근 구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 기근 구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특정 지역에 기근이 닥치는 그런 상황을 자주 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교회에 충분한 자원을 주셨기 때문에 어딘가에 있는 교회가 다른 곳에 있는 교회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다른 곳에 있는 교회도 그들을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므로 함께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8-9장에서 이 모든 요점을 지적합니다.

바울은 또한 유대 교회를 위해 특별히 기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그가 말했듯이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또한 준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빛을 졌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특정 문제, 특히 이방인의 할례 문제를 둘러싸고 유대 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 사이에 약간의 긴장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 화해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헬레나가 한 일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유대인 구호 활동은 지역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외적인 아이디어였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약성서의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다지방 조직은 제국에서 의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물건을 공유하는 것은 제국과 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랬어요. 그들은 예언을 통하여 이 기근에 미리 대비하였습니다. 글썄요, 여러분은 창세기 41장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세계와 애굽과 가나안 주변 지역에 다가올 기근을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여 그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고 안디옥 교회도 이에 지혜롭게 반응했습니다. 12장에서는 다음과에서 베드로의 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을 가르칠 때 Dr. Craig Keener입니다. 13회차, 사도행전 10장과 11장입니다.